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 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 아 세 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수녀님 인사 이동



그동안 구로3동 본당과 신자들을 위해 애써주신 정선아 세레나 수녀님이 새로운 소임지로 갑니다. 수녀님께서 영육 간에 늘 건강하시도록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1Cu-우리어머니	2월 12일(일), 12:00	강당
2Cu-사도들의 모후	2월 12일(일), 13:30	강당
울뜨레아	2월 19일(일), 11:40	강당

● 알림

- 오늘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형제자매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2월 15일(수) 11시 경로당 월례 미사가 있습니다.
- 사형제도폐지 법안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 서명 운동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재의 수요일 안내 : 2/22(수)

- 회개와 은총의 시기인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날이며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이 있습니다.
- 교회의 전통에 따라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금육재(만14세부터)와 단식재(만18세~60세 전까지)를 지킵니다.
 - 성지가지를 가지고 계신 가정은 성전입구 수거함에 2/19(일)까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의 수요일 미사 시간 및 재의 예식 안내
- | | |
|----------|-------|
| 새벽 06:30 | 저녁 7시 |
|----------|-------|

● 회의

- 사목협의회
 - 일시 : 2월 23일(목), 19시 40분
 - 장소 : 강당

● 교육 / 강좌

- 레지오 전단원 교육
 - 대상 : 레지오 단원(일반 신자도 참석 가능)
 - 일시 : 2월 24일(금), 저녁 미사 후
 - 장소 : 본당 대성전
- 예비신자 교리 신청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
 -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 2023년 첫영성체 교리 안내

- 대상 : 첫영성체를 하지 않은 3~6학년 어린이(2023학년)
- 일정 : 3/4~6/10, 첫영성체 : 6/11(일)
- 부모님 첫 모임 : 2/25(토) 17:00, 소성전
- 교리 : 소성전 교육관 (토, 14:00~15:30)
- 신청접수/접수처 : 2/5~2/18까지, 사무실(평일 접수)
- 문의 : 김국화 교사 010-5336-2802(문자로 문의)

나눔 바자회 물품 후원

- 기간 : 2월 12일~4월 23일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12시
- 장소 : 식당 맞은편 사목협의회실
- 품목 : 의류, 생활용품, 주방용품, 완구류, 유아용품, 잡화 등
- ※ 판매가 어려운 물품의 경우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수익금은 구로3동 성당 신자와 이웃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 다음 주일(2/19)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14구역	청소	17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2월 1일 ~ 2월 7일)

- 교무금 8,402,000원
- 주일헌금 4,519,500원
- 해외 원조 주일 2차 헌금 1,829,000원
- 조○○ 5만원 안옥순 5만원 김대건 5만원
- 감사헌금 이재숙50만원 양○○ 5만원 이순영 5만원
- 김금옥2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2/12	황원선	심재순	최상림
2/19	이영민	조흥환	김진수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2/12	이화봉	옥윤필	최승일	최영만
2/19	장인홍	오광운	최창열	황태영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모든 형제들” -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251. 참으로 용서하는 사람들은 잊지는 않되, 그들에게 악행을 저지른 파괴적인 힘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악순환을 깨고 파괴의 힘이 기승하는 것을 막습니다. 조만간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인 그 복수의 기세가 사회 안에서 계속 퍼져나가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수는 피해자들의 불만을 결코 없애 주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들은 너무나 참혹하고 잔인해서, 이를 저지른 가해자의 처벌이 그 범죄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에 아무 소용이 없기도 합니다. 그 범죄자를 죽이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맛먹는 고문을 찾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252. 우리는 면책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의는 오로지 정의 자체에 대한 사랑, 희생자에 대한 존중, 새로운 범죄의 예방, 공동선의 수호를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만 추구됩니다. 정의는 개인적 분노의 표출로 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바로 복수의 악순환이나 망각의 불의에 빠지지 않고 정의를 추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253. 양측 모두에게 불의가 있을 때에는, 불의의 심각성이 같았는지 아니면 비교 불가능한지를 명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국가의 구조와 공권력이 행사한 폭력은 개별 집단들의 폭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든, 한 당사자가 겪은 부당한 고통만 기억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크로아티아 주교들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모든 무고한 피해자를 동등하게 존중해야 합니다. 인종, 종교, 국적, 정치색에 따른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254. 저는 하느님께 다음과 같이 간청드립니다. “하느님, 저희가 마음을 열고 이념, 언어, 문화, 종교의 차이를 뛰어넘어 형제자매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느님, 저희 모두에게 하느님 자비의 기쁨을 부어 주시어, 과오와 오해와 다툼으로 입은 저희의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또한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저희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평화 추구의 험난하지만 풍성한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